



## 따뜻한 인간미와

청년 같은 정신의 작가

# 김주영



《객주》 재출간 방담

### \* 1 그가 궁금했다

사람들은 문단에서 인격이 일치하는 흔치 않은 인물로 작가 김주영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자리가 마련된 곳은 작가의 집필실. 《객주》의 재발간 의미를 되짚고자 마련된 자리지만 선생의 인간적인 면모를 살펴보기에 모자람 없는 질문과 답변들이

오갔다. 대담이 진행되는 동안 떠오른 인간 김주영에 대한 몇 가지 단상들.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드러나는 모습은 솔직담백함이었다. 《객주》를 집필할 당시, 작가의 승부수를 던지는 결심을 했던 것이냐는 물음에 딱 잘라 말한다. ‘그랬던 것은 아니다.’ 《객주》가 이미 작가 김주영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 있으므로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강하게 부정하는 것은 자못 인상적이다. 처음엔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고 자세히 들어보면 아무 알맹이 없는 말들만 나열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두 번째 인상적이었던 것은 예순의 나이에도 팔팔한 소년 같은 호기심이었다. 그는 청송의 산골에서 살다 보니 늘 바깥세상에 눈길을 던져놓고 있었다고 한다. 공간적 한계 속에 갇혀 있었던 어린 시절이 지금도 열린 세상을 향한 두근거림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소설이라는 공간은 어쩌면 선생에게 이런 호기심을 표출할 수 있는 활로가 아니었을까.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으로 아직도 지방을 가면 숙소의 서랍은 다 열어 봐야 직성이 풀린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선생이 갖고 있는 심신의 건강성을 들 수 있겠다. 호기심과 관찰력, 그는 둘 다를 아직 놓지 않고 있다. 후배 작가 심상대가 지적했듯이 선생의 소설 속에 나오는 성적 인 묘사는 외설보다 건강과 순리에 가깝다. 그것이 옳은 표 현되는 것은 그 묘사에 다른 뜻(?)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가지는 생명력과 역동성을 나타내고 싶을 뿐이라는 선생의 생각은 작품뿐 아니라 선생의 평소 철학에서 비롯된 듯하다.

언제나 떠날 수 있는 행구를 집필실 구석에 준비해놓고 지낸다. 예순을 서너 해 넘기고도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인간 김주영의 패기이다. 그것은 곧 나는 언제든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작가 김주영의 선언이기도 하다.

### \* 2 대담 후일담

《객주》는 작가 김주영의 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다. 9권에 달하는 양적인 분량에 못지않게 많은 공력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5년간의 자료수집과 3년에 걸친 장터 순례, 2백여 명에 달하는 증인 인터뷰를 하느라 선생은 희열과 고통을 동시에 가뉘

야 했다. 이 무렵 그는 전국을 쉴새없이 누볐고, 누구를 만나든 자료보통이를 보물상자처럼 꼭 끌어안고 다녔다. 대담은 작가의 이런 삶을 중심으로 풀려나갔다. 대담은 크게 세 가지 뼈대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패널로는 하응백(문학평론가), 심상대(소설가), 조용호(《세계일보》 기자, 소설가) 씨가 참석하였다.

먼저 《객주》가 어떤 작가적 결심에서 출발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김주영 선생은 “산골에서 자란 ‘나’ 로선 일상이 침체되어 있었지만 장날만큼은 활기가 넘쳤다. 그것이 어린 ‘나’ 로선 상당한 충격이었다. 삶에 활력을 넣는 사람들, 장꾼들의 얘기를 써보고 싶어 자료를 모으다보니 자연스럽게 긴 글이 되었다”고 집필 배경을 밝혔다.

《객주》에는 특별한 영웅이 등장하지 않는다. 최인호의 《상도》에서처럼 불세출의 거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층 계급인 보부상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물들이 이야기를 만들



〈세계일보〉 기자,  
소설가 조용호

문학평론가 하은백

소설가 심상대

어나간다. 특별한 의도가 궁금했다. “《객주》를 쓰면서 우리 역사에 조작된 부분이 많고 지나치게 왕조사 중심으로 기술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역사는 서민의 일상, 삶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했다. 나라는 백성의 힘으로 백성들의 힘에 의해 살아남는 것 아니냐는 게 내 생각이었다. 그런데 보부상의 자료를 모아보니 실제로 영웅이 없었다. 보부상단이라는 조직의 힘으로 움직이는 집단이었다.”

패널들이 하나같이 지적한 것처럼 《객주》는 토속어들의 향연을 보는 듯 우리말의 사용이 거의 원형에 가깝다. 작가 김주영은 어떻게 100년 전의 언어를 되살려낸 것인가. “역사소설을 쓰는 작가라면 그 당시에 썼음직한 말들을 골라 써야 한다. 그래야 소설의 현실감이 살아나지 않겠나. 그런 말들을 찾아서 상당한 기간 동안, 소설을 쓰는 와중에도 많이 헤매고 다녔다.” 100년이 지나도 옛 풍습을 지키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때문에 가능한 외부와 차단된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옛날에 발간된 소설들이나 군지(郡誌)들을 읽고 시골바다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의 말을 녹취하고, 보부상 후손들의 증언도 들으면서 빈 틈을 메워나갔다고 한다.

작가 김주영은 2002년 《홍어》에 이어 《멸치》를 펴내 ‘김동리문학상’을 받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애착이 남다른 작품이 《객주》다. ‘이십 년 전에 발간되어 지금까지 절판되지 않은 것은 작가에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쓸 때는 자료가 없어서 애를 먹었지만 발간하고 난 후에 논문의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자긍심을 느낀 적도 많았다고 밝힌 작가는 새롭게 펴내는 《객주》가 지난 시대 민초들의 삶을 껴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취재 강경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 《객주》재출간 기념 방담 뒷풀이 스케치

### 다시 태어난 《객주》, 술상 앞 네 개의 풍경

#### 《객주》 재출간 방담 뒷풀이 풍경은?

작가들은 공식적인 만남 이후 어떤 뒷풀이로 칼칼한 목을 적실까? 그리고 그곳, 작가들의 술안주는 어떤 맛일까? 《객주》 재출간을 앞두고 입담 좋은 글꾼들의 소주 한잔 걸칠인 뒷풀이가 시작되었다. 참석자는 소설가 김주영·김원일·조용호·심상대 씨, 문학평론가 김주연·하은백 씨, 문인당 임성규 대표. “내년에 문학상을 타게 되면 선배님들 다 모시고 타히티 섬으로 갈 겁니다.” 문단재담꾼 심상대 씨의 농담으로 뒷풀이는 무르익기 시작했다.

작가들의 술안주가 궁금한가? 삶과 소설, 돈과 세상, 술과 여자. 그것은 간혹 질편하지만 가식이 없어 오히려 향기롭다.

#### 이제야 밝히는 《객주》의 숨은 공신은?

작가들의 얼굴에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다. 평론가 김주연 씨가 《객주》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를 꺼내들었다. “김주영 선생은 늘 보따리를 끼고 다녔어. 무슨 보따리를 그렇게 들고 다니나 했더니 그게 바로 《객주》의 취재 자료들이었어.” 당시 〈서울신문〉 기자였던 김주연은 편집국장에게서 관참은 신문 언제 후보 작품이 없느냐는 질문과 함께 ‘원고료는 상관없다. 신인도 좋다’는 얘길 들었다. 김주연 씨는 늘상 옆구리에 보따리를 끼고 다니던 작가 김주영을 본능적으로 떠올렸다. 국문학자 정병욱이 선배 운동주의 시를 세간에 발표한 것처럼, 허균이 누이 난설현의 시를 불에서 건져낸 것처럼 평론가 김주연 씨는 작가 김주영의 보따리 속에서 《객주》를 꺼냈다. 좋은 작품은 눈 밝은 평론가와 기자에 의해 탄생된다고 했던가. 문학평론가 김주연 씨는 《객주》를 탄생시킨 눈 밝은 숨은 공신. 《객주》는 무려 5년간 장기 연재됐다.

#### 김주영은 섬세하다?

김주영은 선이 굵은 작가다. 그는 때로 보스 같고, 큰형님 같다. 그러나 웃을 때 그는 천진해 보인다. 그렇게 웃을 때 거의 감기는 눈 속으로 그는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섬세한 풍경들을 눈에 담아낸다. “바깥 풍경이 아름다우니 문을 닫지 않게.” 미닫이문을 닫는 식당 종업원을 향해 던진 말이다. 건너편 방 식탁에 미모의 여인들이 앉아 있었던 것.

그의 취미는 무엇일까? 그는 여행을 다니며 점시를 수집한다. “왜 점시를 모으세요?” 대답은 간단명료했다. “거기 그려진 그림이 좋아서.” 풍경과 그림을 좋아하고, 점시를 수집하는 섬세한 작가. 시골장터, 아프리카 밀림, 어디를 가든 그는 직접 사진을 찍는다. 그의 집필실엔 사진 작가의 작품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아프리카 풍경이 걸려 있다.

#### 언제든 떠나길 원하는 여행가의 호방한 미소

길을 사랑하는 사람은 용감하다고 했던가. 김주영의 방에는 늘 행구가 마련되어 있다. 그에게 ‘떠남’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온다. 그것이 참 여행이다. “김주연과 늘 반항을 썼어.” 그의 여행길 동반자는 김주연일 때가 많다. 이들은 늘 함께 여행했다. 함께 걸었고, 함께 고뇌했고, 함께 글을 썼다.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또 다른 여행을 ‘모의’ 한다. “날 잡아서 여행이나 하세 친구.” 잔뜩 취했으면서도 의식은 명료한 작가 김주영과 평론가 김주연은 《객주》 앞에서 다시 한 번 행구 챙길 희망에 부풀어 있다. **★**

김청연 기자